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부장·편집부국장

지금 이 글은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를 들으며 쓴다. 너무 아름다워 신까지 잊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로마 교황청이 악보 필사를 금지하고, 오직 로마 성시스티나 성당에서만 연주하게 했다는 곡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현재, 이 곡을 들을 수 있는 건 한 천재 작곡가 덕분이다. 1774년 아버지와 함께 성당을 방문한 14살 소년은 이 음악을 들은 후 단번에 곡을 외워 버렸고, 곧바로 필사했다고 한다. 그 천재가 바로 모차르트다.

인간의 존엄을 그린 화가, 루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전남도립미술관·2023년 1월 29일까지)에서 만난 '미제레레'는 예전에 들던 그 '미제레레'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루오가 구상한 '미제레레' 연작 58점 속에서 만나는 건 '나약한 인간'이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이 드는 전시 공간에 걸린 검은색과 흰색의 판화는 '미제레레'를 비롯해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등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져 더 깊은 감동을 줬다.

사람들은 미술 작품 관람은 좀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비엔날레처럼 현대 미술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현

'분장하지 않는 자 그 누구인가?'

장은 더 힘겨워 하는 듯하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관람 법을 묻는 그들에게 명쾌한 답을 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때마다 하는 말은 이것이다. "그 많은 작품 중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이 단 한 작품만 있어도 그게 참 행복한 경험 아니겠느냐"고.

당신은 혹시 한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어본 경험이 있는 지 모르겠다. 나는 아주 오래 전, 출장이 아닌 개인 여행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경험을 전하게 했다. 당시 핫했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관람 등으로 일정을 보낸 후 마지막 날 고향으로 떠나기 전 찾은 영국 테이트 미술관이었다. 이 곳에서 존 에버릿 밀레이의 '오펜리아'를 만났다. 첫 인상이 너무 강렬해 좀처럼 발길을 떼기 어려웠다. 비행기 출발 시간을 계산하며, 수차례 정문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 작품 앞에 섰다. 왜 테이트 미술관을 마지막 방문지로 했나 싶어 내 자신을 일망(?)도 했다. 아마도 다시 테이트 미술관을 방문한다 해도 '오펜리아' 앞에서 그때처럼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내 마음 상태,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가 만들어낸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루오전에서는 풍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취재로 여러 번 전시장을 방문했는데, 다른 관람객들처럼 나 역시 '미제레레' 앞에 한참을 머물게 된다. 그중에서도 '분장하지 않는 자 그 누구인가?'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세상 살면서 제 얼굴, 제 속마음 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래서 인생의 무대 위에서 다들 분장을 하고 있을 테니 광대 모자를 쓰고 슬픈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해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전시의 '미제레레' 설명을 쓴 정중호 에밀리오 신부는 인터뷰 후 함께 전시를 둘러봤을 때 "인간의 내면까

지도 그린 루오의 이 작품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16년 형 정양모 신부와 함께 발간한 해설집 '미제레레' (기쁜 소식)를 건네받았는데, 표지화가 바로 이 작품이어서 더 반가웠다. '미제레레'의 또 한 작품 '외톨이들의 거리'와 전시장 초입에서 만난 아주 작은 크기의 초기 풍경화 한 점도 마음에 담아 둔 작품이다.

당신을 사로잡은 작품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이견희 컬렉션 중 근현대 미술을 만나는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 전(11월 27일까지)이 진행 중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이견희 컬렉션-어느 수집가의 초대'에서는 고미술의 세계에 빠져 볼 수 있다. 담양 아트위크(28일~11월 5일) 행사로 열리는 '유유자적·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아트슈퍼마켓'에서도 다양한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그림이 전하는 말에 잠시 귀 기울여 보자. 그리고, 오래도록 고이 간직할 '나만의 작품'을 하 나씩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박수근·이중섭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나는 강요배의 '역사꽃'이 가장 좋았다. 어쩌면 담양 전시에서 마음을 움직일 청년 작가를 만날지도 모른다.

힘들고 외로운 자들, 소외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던 루오의 작품에서 느꼈던 감정을 최근 읽은 백수린의 에세이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에서 다시 만났다. 힘든 세상이지만, 아직은 살 만하다는 따뜻한이다.

바빠 달려온 삶에서 잠시 멈춰 한 번쯤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예술이 건네는 근사한 초대장이다.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국내의 어떤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20년 전부터 식목과 육림에 투자해 왔고 이제는 그 나무들이 거대하게 성장해서 현지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투자한 국내 기업도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면서 탄탄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무를 키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였다. 그러나 그러한 긴 안목을 지닌 투자 덕분에 이 회사는 마침내 매우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매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이처럼 꾸준하게 유지되고 시세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단절되거나 전면 재검토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 자체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퇴보하게 된다. 우리 경제는 그 동안 60년대와 70년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추세에 맞추어서 경제가 성장해왔다. 그에 따라 각종 소비재 시장이 성장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대학 입학 과열 경쟁과 같은 사회문제도 겪으면서 변화해 왔다. 어떤 경제학자는 인구가 최소 8000만 명이 넘어야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이 실제 그러하고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

인구 감소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위축되고 있는 것과 같다. 농촌의 읍내에 가면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살지 않는 폐가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는 도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다. 격정이다. 소비 인구에 맞게 모든 생산과 유통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공장은 문을 닫고 유통도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나 학원 앞 분식집과 같은 골목 상권도 더 심각해 질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젊은 부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년을 내다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시원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엔 젊은 부부가 거의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만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두 부부

가 직장 생활을 걱정없이 유지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당연하게 해 주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은 그에 따른 책임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기 배움과 성장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복지비 이런 모든 예산에 반드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비는 미래의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대학 입학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대학의 운영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이 차별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개념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아와 양육에 젊은 부부의 손이 덜 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민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코리안 드림을 갖게 하는 것도 인구 정책의 큰 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보다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내 삶이 지치고 힘들면 누가 그것을 감내 하려고 하겠는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무자녀로 부부 생활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찍은 SNS가 넘쳐 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광주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관광 시장에서 의료관광은 1990년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역사는 고대 로마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제국 귀족들은 지친 심신 회복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나폴리를 방문하여 온천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를 위해 충청남도 온양온천과 강원도 이천온천에서 한 달 동안 요양을 하였다는 기록에서 의료관광의 시작을 엿볼 수 있다.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하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면 세계적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려면 의료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

광주광역시시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의료관광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설립된 2017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 광주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약 65.6%가 증가

했다.

광주광역시는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구 100만 명 기준 병상 수, 우수 의료장비, 간호사 수가 전국 1위인 지역으로, 의료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관광은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관광으로 우수한 의료 인프라에 의료 관광을 위한 고품질 관광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의료관광을 지역 특화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관광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도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공인 자격 제도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화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 소비자 유치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의료관광을 지역특화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다양한 의료관광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형 의료관광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社說

속절없이 무너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원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호남 최대 중심 상권이었던 광주시 동구 충장로·금남로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가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공실률이 해마다 치솟으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충장로·금남로 중대형 매장 공실률은 25.8%로 조사됐다. 네 곳 중 한 곳을 문을 닫아 버어 있다는 얘기는 얘기다. 이는 광주 전체 중대형 매장 공실률(15.3%)과 비교해도 10.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충장로·금남로 상가 공실률은 2019년 15.2%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19.8%, 2021년 23.5%, 올해는 25.8%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7%였던 소규모 매장 공실률 역시 올해는 13.7%로 경증 뒤편었다.

빈 점포 증가에는 코로나19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든 데다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등 거대 프랜차이즈 업체나

'왕자관' '유생촌' 등 전통의 노포(老舖)들도 버티지 못하고 잇따라 철수했다. 여기에 리모델링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 동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충장로와 금남·충곡 지하상가를 입체적으로 융합,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상권 조성에 나선 점이다.

구도심 공동화가 지속되면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결국 광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상권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 공용 주차장 조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호남 쇼펍 1번지'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과 특화 상품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말뿐인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적극 단속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정책이다. 사업주들은 '시설 내 고시 의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등록 신청서와 매장 게시물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계도 기간을 줬다. 그 이후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사업주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사)소비자교육중앙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의 체육시설 열 곳 중 네 곳이 사업장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육시

설은 방문 상담 후에도 강요료와 환불 규정을 알려준다고 하는가 하면, 가격 출혈 경쟁이 심해질수록 업체들끼리 '제 살 깎아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가격 표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이 환불을 놓고 사업주와 마찰을 빚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 헬스장에 등록한 지 2주 후 징집 소집 통지서를 받은 한 휴학생은 사업주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20%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신청이 전무하다. 실효성 있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체력 관리를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인 한복이 최근 영국의 유명 출판사인 옥스퍼드에서 발행하는 학습자료 영어 사전에 새로 등재됐다. 'hanbok' (한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긴 소매의 재킷과 길고 넓은 여성용 치마 또는 남성용 헐렁한 바지로 이뤄진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hanbok'이 해외 사전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영국 롤린스 사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을 자국 전통 복장인 '한푸'로 역사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결과물이며, 중국이 우리보다 한복을 더 오래 입어 온다는 주장이 있다.

이 56개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소수 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를 알선했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한국의 고유 문화를 중국의 문화처럼 눈속임하려는 꼴수를 부렸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의 이미지 영상 플랫폼인 미국 게티이미지가 중국 무용수들이 춘천을 기점으로 한 전통 의상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과 설명만 보면 전 세계인이 한복과 부채춤을 마치 중국의 전통 복장과 문화로 착각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실린 사진이 전 세계 유명 교차출판사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 영어 교재로 출판됐고, 이 교재를 미국·유럽·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양국 간 관계 경색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문화 교류 확대에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중국 정부도 성숙한 자세로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기 고



정성호 남대내 관광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 관광산업을 위축시켰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확대되면서 각 국가 및 지역은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안전한 저밀도 관광지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워킹 활동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객의 관광 형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설문 조사 참여자의 약 75%가 단순한 워킹 관광보다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웰니스(wellness) 관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웰니스 관광의 한 유형인 의료관광이 침체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은 의료 소비자가 자신의 정주지 내 의료기관의 수준, 비용, 서비스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워킹 활동을 추구하는 겸목적적 관광이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담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